무료 배차 진단 리포트

하루치 데이터로 본 우리 배차의 개선 여지

실제 진단에서 받으시는 리포트의 구성을 보여 드리는 샘플입니다. 아래 수치는 가명 회사의 예시이며, 실제 진단은 귀사의 하루치 주문·차량 데이터로 시뮬레이션한 결과로 드립니다.

대상	데이터	운용 차량	배송지
○○물류 (가명)	평일 1일치	18대	320곳

총 운영비 (배차 기준 · 일)

~~520~~ → **440** 만원

월 환산 절감

약 1,800만원 / 월

투입 차량 수	용차 사용	총 주행거리	유류비 (추정)
~~18~~ → **15** 대	~~6~~ → **3** 대	~~2,400~~ → **2,050** km	~~68~~ → **58** 만원
▼ 3대	▼ 3대	▼ 15%	▼ 15%

운영 시간	탄소배출량 (추정)	정시 배송률 (추정)	기사 업무 편차
~~144~~ → **123** 시간	~~1.04~~ → **0.89** 톤	~~82~~ → **96** %	~~±38%~~ → **±9%**
▼ 15%	▼ 15%	▲ 14%p	▼ 더 균등

* 샘플 화면입니다. 수치는 예시(홈페이지 샘플 진단 리포트와 같은 가명 데이터)이며, 실제 진단은 귀사의 실제 배차 데이터(주문·차량) 기준 시뮬레이션 결과로 제공됩니다. 이 결과를 만든 배차 로직·옵션 설정은 보고서에 담지 않습니다. 콜드체인은 냉장·냉동 차량과 칸(격벽) 배정 기준이며, 차량 내부 온도 측정(IoT)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1. 진단 범위

무엇을 넣고, 무엇을 비교했나

같은 하루치 주문을 지금 방식의 배차(현행)와 SEECARGO 배차(시뮬레이션)로 나란히 놓고 비교합니다. 현장 조건이 빠지면 비교가 의미 없으므로, 조건부터 확인합니다.

구분	받은 데이터 (예시)	확인한 내용
주문	평일 1일치 · 배송지 320곳 · 주소, 물량(무게·부피·상자 수), 받는 시간	확인이 필요한 주소는 목록으로 따로 정리
차량	운용 차량 18대 · 차종, 적재 한도, 소속(직영·지입·용차)	차량별 한도와 근무 시간
현행 배차	같은 날 실제로 나간 배차표(차량별 배송지·순서)	비교 기준선
현장 규칙	담당자 인터뷰로 받은 예외 규칙(메모 수준)	조건으로 옮길 수 있는지

✔ 이 샘플에서 반영한 조건

- 배송지별 받는 시간(시간창, 두 개까지)
- 차량별 적재 한도(무게 · 부피 · 상자 수)
- 착지 조건(진입 가능한 차량만)
- 하차 작업 시간(배송지별 + 차량별 합산)
- 근무시간 · 휴식 한도, 다회전
- 출발 · 도착 유형(센터 왕복 · 편도)

— 진단에 포함하지 않는 것

- 차량 내부 온도 측정 · 기록(IoT)
- 결과를 만든 배차 로직 · 옵션 설정
- 용차 자동 호출 — 용차는 관리자가 판단해 수배
- 하루치를 넘는 기간의 실적 보장

현행과 시뮬레이션은 이렇게 맞춰 비교합니다

같은 날, 같은 주문, 같은 보유 차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물량이 차량 용량을 넘는 경우에도 배차를 멈추지 않고 전부 배차한 뒤 넘는 차와 넘는 양을 표시합니다. 과적을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넘친다는 사실을 상차장이 아니라 배차 단계에서 먼저 보이게 하려는 것입니다.

2. 개선 포인트

숫자 뒤에서 확인해 볼 네 가지

진단의 목적은 숫자 하나가 아니라, 우리 현장에서 어디가 새고 있는지를 짚는 것입니다. 1:1 진단 때 아래 항목을 귀사 데이터로 함께 봅니다.

1 차량과 용차 — 같은 물량, 더 적은 차

투입 차량 18 → 15대 · 용차 6 → 3대 (예시)

손으로 나눈 배차는 덜 찬 채 출발하는 차가 생기기 쉽습니다. 차량별 적재 한도 안에서 배송지를 다시 나눠 담으면, 직영·지입 차량을 먼저 채우고 용차는 필요한 만큼만 쓰는 구성이 가능한지 보입니다.

☐ 덜 찬 채 출발한 차 · ☐ 같은 권역에 겹쳐 들어간 차 · ☐ 그날 급히 부른 용차

2 거리 · 시간 · 유류비 — 동선의 낭비

주행거리 2,400 → 2,050km · 운영 시간 144 → 123시간 · 유류비 68 → 58만원 (예시 · 유류비는 추정)

익숙한 길과 지난번 순서를 따르는 배차는 오늘 주문 구성에 맞지 않는 순서가 섞입니다. 같은 배송지를 다른 순서로 돌았을 때 거리와 시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차량별로 봅니다.

☐ 되돌아오는 동선 · ☐ 권역 경계를 넘나드는 차 · ☐ 대기 시간이 긴 배송지

3 정시 배송 — 약속한 시간 안에 들어가는가

정시 배송률 82 → 96% (예시 · 추정)

배송지마다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다르면, 순서가 조금만 어긋나도 늦는 곳이 생깁니다. 출발 전에 배송지별 도착 예정 시각을 계산해 어느 곳이 빠듯한지 먼저 확인합니다.

☐ 자주 늦는 거래처 · ☐ 시간창이 두 개인 거래처 · ☐ 하차가 오래 걸리는 곳

4 기사 업무 편차 — 한쪽으로 몰리지 않는가

업무 편차 ±38% → ±9% (예시)

어떤 차는 일찍 끝나고 어떤 차는 밤늦게 끝나는 배차는 기사 피로와 이탈로 이어집니다. 기사 탓이 아니라 나누는 방식의 문제이므로, 근무시간 · 휴식 한도 안에서 고르게 나눴을 때의 차이를 봅니다.

☐ 매일 가장 늦게 끝나는 차 · ☐ 숙련도에 따라 몫을 달리해야 하는 기사

3. 다음 단계

진단 뒤에는 이렇게 작게 시작합니다

한 번에 갈아엎을 필요는 없습니다. 쓰던 엑셀을 그대로 올리고, 기존 배차와 나란히 비교하면서 납득되는 구간부터 넓힙니다.

STEP 1

엑셀 그대로 올리기

쓰던 주문 엑셀을 새 양식 없이 업로드. 직접 입력·API 연동도 가능

STEP 2

병행 비교

기존 배차는 그대로 두고 같은 날 결과를 나란히. 어긋나는 곳마다 빠진 조건을 채움

STEP 3

넓히기

가장 복잡하고 매일 반복되는 구간부터 넘기고, 결과가 납득되는 만큼 확장

먼저 조건으로 옮길 현장 규칙 (진단 때 함께 채웁니다)

- ☐ 오전에만 받는 거래처, 시간이 두 번인 거래처 → **시간창**
- ☐ 큰 차가 못 들어가는 건물·지하주차장 → **착지 조건**
- ☐ 무게가 먼저 차는 날, 부피가 먼저 차는 날 → **적재 한도**
- ☐ 내리는 데 오래 걸리는 곳, 오래 걸리는 차종 → **작업 시간**
- ☐ 상온·냉장·냉동이 섞인 거래처 → **온도대 · 칸 구성**
- ☐ 넘나들지 않았으면 하는 강·큰 도로 → **교차금지선**
- ☐ 지역이 익숙한 기사, 처음 온 기사 → **운전자 숙련도**

결과는 관리자가 확정합니다

배정과 순서는 엔진이 계산하고, 관리자는 화면에서 결과를 직접 옮기고 고칠 수 있습니다. 옵션을 바꿔 여러 안을 비교한 뒤 확정합니다. 계산은 엔진이, 판단은 사람이 맡습니다. SEECARGO는 배송지 1,000곳을 차량 100대로 배차할 때 30초 이내에 계산을 마치므로, 주문이 바뀌어도 바뀐 조건을 넣고 다시 돌릴 수 있습니다.

귀사 하루치 데이터로 받아 보세요

비용 없음 · 영업일 1일 이내 연락 · 데이터는 NDA로 보호

seecargo.co.kr

* 샘플 화면입니다. 관리자는 별도 설치 없이 PC 브라우저에서 바로 시작합니다.